

# Mediating Effect of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Da Hye Hong Soo Hyun Park<sup>†</sup>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re mental health conditions that exhibit a high rate of comorbidity.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co-occurrence of the two conditions is associated with a negative prognosis. As such, it is important to identify conditions under which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may co-occur. The present study thus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is is based on the comorbidity model which suggests that social anxiety acts as a causal risk factor for secondary depression. A total of 147 adults (36 males and 111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Bootstrapping procedures were used to test for a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anxiety is indirec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rough the mediating mechanism of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extracting positive meaning from positive social feedback, which then may lead to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The implications for the comorbidity betwee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re discussed.

**Keywords:** social anxiety, depression, comorbidity,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사회 불안과 우울은 흔히 공존하는 심리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역학 조사인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NCS-R)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평생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6배 더 높았다(Ruscio et al., 2008). 사회 불안과 우울이 공존하는 경우, 각 장애의 증상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Kessler et al., 2005), 더 심각한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lrymple & Zimmerman, 2007; Erwin, Heimberg, Juster, & Mindlin, 2002). 또한, 사회불안장애와 공존하는 우울 증상은 치료에 대한 낮은 반응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Ledley et al., 2005), 두 장애의 공존이 치료 경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불안과 우울이 공존하게 되는 조건과 그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높은 공존률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기능적 및 치료적 예후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이 발생하는 기제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미흡한 상태이다. 몇몇 이론에서는 사회 불안과 우울이 빈번히 공존하는 원인에 대하여 두 심리적 문제가 공통적인 병인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lark와 Watson(1991)이 제안한 불안과 우울의 3요인 모델(tripartite model)에 근거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 불안과 우울은 높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및 낮은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공통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Brown & Barlow, 2009; Watson & Naragon-Gainey, 2010). Gray(1987, 1991)가 제안한 행동억제 및 행동활성화 체계(behavioral inhibition/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이론에 기초한 연구에서는 높은 행동억제체계상의 민감성이 불안과 우울에 대한 공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e.g., Muris, Meesters, de Kanter, & Timmerman, 2005). 특히, 행동억제체계는

<sup>†</sup>Correspondence to Soo H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mun-gu, Seoul, Korea; E-mail: parksoohyun@yonsei.ac.kr

Received Nov 17, 2018; Revised Jan 16, 2019; Accepted Jan 16, 2019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Yonsei University Future-Leading Research Initiative of 2015 (2017-22-0136).

불안장애 중에서도 사회불안장애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Hirshfeld-Becker et al., 2008),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은 불안과 우울의 공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불안과 우울 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었다. NCS-R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장애가 발생하는 시간적 순서를 살펴본 연구에서 불안은 대체적으로 우울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우울이 불안에 선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보고되었다(Kessler et al., 2005). 이와 일관되게 사회불안장애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역시, 사회불안장애가 우울과 공존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불안장애가 우울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eesdo et al., 2007; Dalrymple & Zimmerman, 2011; Ohayon & Schatzberg, 2010). Beesdo 등(2007)의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는 10-19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하며, 그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우울장애의 발병률 패턴의 경우 이보다 더 지연된 경향을 보였다. 후향적 설계를 사용한 연구에서 역시 사회불안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11.7세로 나타난 반면, 주요우울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22.0세로 보고되어, 종단적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Dalrymple & Zimmerman,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 불안과 우울 간에 특수한 시간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몇몇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사회 불안이 우울에 대한 인과적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두 장애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e.g., Cummings, Caporino, & Kendall, 2014; Lewinsohn, Zinbarg, Seeley, Lewinsohn, & Sack, 1997; Wittchen, Beesdo, Bittner, & Goodwin, 2003). 다시 말해, 사회 불안에 따른 기능적 손상이 우울 증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이차적으로 우울 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불안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Grant, Gayle, Farrow와 Davila(2007)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사회 불안과 관련이 있는 대인관계상의 정서표현의 회피가 이후 우울 증상을 유발함을 밝혔다. Epkins와 Heckler(2011)는 사회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적 모델을 통해 또래 괴롭힘, 사회적 위축, 낮은 친구관계의 질과 같은 요인이 아동 및 청소년기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을 설명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렇듯 사회 불안이 우울로 이어지는 기제를 살펴본 연구가 소수 존재하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인관계적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 불안의 임상적 특성상 대인관계적 요인의 영향력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불안과 우울의 발현에 있어 공통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 인지적 요인은 사회 불안이 우울을 촉발시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선행 요인일 수 있다. 정서장애에 대한 인지 이론(Beck, 1976; Beck, Emery, & Greenberg, 1985)에 따르면, 정서적 반응은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인지적 활동에서의 편향이나 왜곡은 외부 환경을 객관적인 현실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정서를 유발하거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Gotlib & Joormann, 2010). 이를 통해 인지적 왜곡은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Joormann, Yoon, & Siemer, 2009). 이러한 이론에 기초할 때, 부적응적인 인지는 사회 불안과 우울이 공존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사회 불안은 우울 유발적인(depressogenic) 개인 내적 인지적 왜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Cummings et al., 2014).

사회 불안 특유의 인지적 왜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인지적 편향에 집중되어 있으나(Bar-Haim, Lamy, Pergamin,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7),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회적 평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왜곡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Farmer, Kashdan, & Weeks, 2014; Heimberg, Brozovich, & Rapee, 2010). 실험 설계를 사용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방의 긍정적 피드백을 덜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Voncken, Bögels, & de Vries, 2003), 부정확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Weeks, Heimberg, Rodebaugh, & Norton, 2008). Weeks(2010)에 따르면,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편향된 내적 표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적 표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격하하여 해석한다. Weeks(2010)는 이러한 인지적 경향을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이하 긍정 결과 가치 절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긍정 결과 가치 절하란, 긍정적 사회적 사건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으로 내부 귀인하기보다는 운이나 상대방의 호의와 같은 외적 요소로 외부 귀인하는 일종의 인지적 오류를 가리킨다(Weeks, 2010). 예를 들어, 사회 불안 수

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농담을 듣고 웃은 것에 대해 자신의 농담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예의상 웃어준 것이라고 가치 절하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제안되었으며(Jeon & Park, 2011), 실제로 사회 불안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Heimberg & Becker, 2002).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이후 여러 경험적 근거를 통해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집단 및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에게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임이 밝혀졌다(Han, 2015; Weeks, 2010; Weeks & Howell, 2012).

한편, 긍정 결과 가치 절하 경향은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 정서 경험을 방해함으로써 우울 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Kashdan, Weeks와 Savostyanova(2011)는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주목하며, 그 기제 중 하나로 긍정 결과 가치 절하를 제안한 바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상적인 정서 경험의 주요한 원천임을 고려할 때(Trezza, Campolongo, & Vanderschuren, 2011),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가치 절하하는 인지적 왜곡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경험될 수 있는 보상적인 정서 경험을 제한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로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는 긍정 결과 가치 절하 경향이 사회 불안과 감소된 긍정적 정서 경험과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혔다.

긍정적 정서 경험의 감소는 우울 증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우울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일 뿐 아니라(Myin-Germeys et al., 2003; Peeters, Berkhof, Delespaul, Rottenberg, & Nicolson, 2006; Watson & Naragon-Gainey, 2010),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eligman, Rashid, & Parks, 2006). 예를 들어, Raes, Smets, Nelis와 Schoofs(201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건으로부터 유발된 긍정적 정서 경험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을 감소시키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가라앉히기(dampening)가 3개월과 5개월 후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생활 사건으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미래에 우울 삽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함이 보고되었다(Wichers et al.,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긍정 결과 가치 절하와 같이 긍정적인 사건으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지적 경향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인과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회 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받는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격하하는 인지적 특성을 통해 우울 증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에 대한 가치 절하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 증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밝힘으로써 두 장애 간 공존의 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대학교 학부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 결과를 그 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또는 기능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 불안과 같은 본 연구의 관심 변인에 있어 범위 제한의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과 높은 사회 불안 수준을 지닌 지역 사회 성인을 함께 모집하여, 넓은 범위의 사회 불안 수준을 반영한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학교 학부생은 교내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시스템 상에 등록된 '사회 불안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모집 공고를 보고 연구 참가에 동의할 경우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 성인 참가자 모집을 위해서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로부터 Liebowitz 사회 불안 척도(LSAS) 상 일반화된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임상적 절단점(60점)(Mennin et al., 2002) 이상의 점수를 보인 성인 패널을 제공받았다. 그 결과, 대학교 학부생 76명 및 지역 사회 성인 98명을 포함하여 총 17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참가자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147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적절한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해 통계적 검정력 분석(pow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는 119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적정 표본 크기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대다수는 여성(75.5%)이었고, 평균 연령은 26.29세( $SD = 7.52$ )였다. 20대(76.2%)가 가장 많았으며, 30대(15.0%)와 40대 이상(8.8%) 순이었다.

###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소속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7001988-201805-



HR-134-05)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대학생 연구 참가자는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보상으로 교내 연구 관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연구 참여에 상응하는 크레딧(1 크레딧)을 지급받았다. 그 외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모집된 지역 사회 성인 연구 참가자 역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따른 물질적 보상은 없었다.

### 측정도구

**Liebowitz 사회 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 불안을 지닌 성인을 선별하기 위해 Liebowitz(1987)가 개발하고, Yu, Ahn과 Park(2007)이 번안한 한국판 LSAS를 사용하였다. LSAS는 ‘소모임에 참여할 때’,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두려움 척도)와 회피하는 정도(회피 척도)를 4점 Likert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최소 0점에서 최대 8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Mennin 등(2002)의 연구에서 60점이 일반화된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임상적 절단점으로 제안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사회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Kim(2001)이 번안한 한국판 SIAS를 사용하였다. SIAS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0=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Kim(2001)의 연구에서 SIAS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DPSOS)**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에 대한 가치 절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Weeks(2010)가 개발하고, Han(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 척도(DPSOS)를 사용하였다. DPSOS는 총 13문항으로, 자기 지향적 귀인과 타인 지향적 귀인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지향적 귀인 요인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진술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격하

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나는 “운이 좋은 날”에만 사회적으로 잘 풀린다고 느낀다’). 타인 지향적 귀인 요인은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다른 사람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귀인하는 진술로 이루어졌다(예: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10점 Likert 척도로(0=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Weeks(2010)의 연구에서 타인 지향적 귀인과 자기 지향적 귀인 요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5,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가 .90으로 나타났다.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비임상 표본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Chon, Choi와 Yang(2001)이 번안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1주 동안의 정서적, 행동적 경험을 측정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를 사용한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PANAS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Lee, Kim과 Lee(2003)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PANA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적 정서 하위 척도는 전반적으로 유쾌한 기분을 느끼는 수준을 측정하는 10문항(예: 흥미진진한, 원기 왕성한)으로 구성되며, 부정 정서 하위 척도는 전반적으로 불쾌하거나 주관적 고통을 느끼는 수준을 측정하는 10문항(예: 죄책감이 드는, 피로한)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가 각각 .90,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과 .89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과 Hayes(2013)의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였다. 먼저,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Hayes(2013)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사회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에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한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접근은 매개모형의 각 경로(e.g., X→Y, X→M, M→Y)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X→M→Y)의 유무만을 판단할 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for SPSS(Hayes, 2013)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하여 우울에 대한 사회 불안의 직접효과와 사회 불안이 긍정 결과 가치 절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관찰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을 때,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정서는 사회 불안과 우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Brown & Barlow, 2009),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사회 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는 긍정성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Kashdan et al., 2011). 이에 따라 이후 분석 과정에서 긍정적 정서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 간의 상관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사회 불안 평균은 39.626( $SD=12.682$ )으로, 대학생 및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Kim, Yoon, & Kwon, 2013)에서 보고된 평균보다 높았으며, Kim, Ahn과 Kwon

(2015)에서 사용된 사회 불안 집단의 사회 불안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울의 평균은 22.496( $SD=11.304$ )으로, Cho와 Kim(1998)이 제안한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임상적 절단점인 21점을 넘는 수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사회 불안 및 우울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넓은 범위의 사회 불안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교 학부생과 함께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지역 사회 성인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평균은 54.946( $SD=21.843$ )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평균은 각각 22.666( $SD=7.404$ ), 25.428( $SD=8.621$ )이었다. 다음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해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사회 불안( $r=.678, p<.01$ ) 및 우울( $r=.507, p<.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긍정적 정서는 사회 불안( $r=-.344, p<.05$ ), 긍정 결과 가치 절하( $r=-.335, p<.01$ ), 우울( $r=-.422, p<.01$ )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Measured Variables across Gender

Variable	Male (n = 36)	Female (n = 111)	t
Social anxiety (SIAS)	36.278 (14.461)	40.712 (11.920)	-1.838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DPSOS)	49.833 (21.675)	56.604 (21.737)	-1.625
Depression (CES-D)	19.028 (12.434)	23.622 (10.733)	-2.145*
Positive affect (PANAS-P)	25.444 (8.781)	21.766 (6.700)	2.643**
Negative affect (PANAS-N)	23.278 (8.608)	26.126 (8.548)	-1.734

Not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DPSOS =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PANAS-P =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ositive Affect Subscale; PANAS-N =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Negative Affect Subscale.

\* $p < .05$ . \*\* $p < .01$ .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1. Social anxiety (SIAS)	-				
2.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DPSOS)	.678**	-			
3. Depression (CES-D)	.478**	.507**	-		
4. Positive affect (PANAS-P)	-.344**	-.335**	-.422**	-	
5. Negative affect (PANAS-N)	.395**	.397**	.699**	-.088	-
Minimum value	2	7	0	11	10
Maximum value	69	110	49	50	47
Mean	39.626	54.946	22.496	22.666	25.428
Standard deviation	12.682	21.843	11.304	7.404	8.621

Not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DPSOS =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PANAS-P =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ositive Affect Subscale; PANAS-N =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Negative Affect Subscale.

\*\* $p < .01$ .

**Table 3.** Bootstrapping Analysis for Indirect Effect

Dependent variable		B	SE	t	p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Depression (CES-D)	Total effect	.332	.066	5.007	<.001	.201	.463
	Direct effect	.169	.083	2.021	.045	.004	.333
	Indirect effect	.164	.059			.053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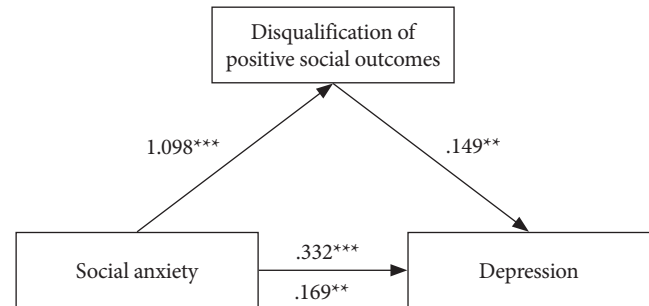
Note.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LLCI = Lower level for 95%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for 95% confidence interval.

부정적 정서는 사회 불안( $r = .395, p < .01$ ), 긍정 결과 가치 절하( $r = .397, p < .01$ ), 우울( $r = .699, p < .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사회 불안, 긍정 결과 가치 절하, 우울 점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  검정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우울( $t = -2.145, p < .05$ )과 긍정적 정서( $t = 2.643, p < .01$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Table 2).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효과

긍정 결과 가치 절하가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긍정적 정서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사회 불안은 긍정 결과 가치 절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 = 1.098, p < .001$ ),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149, p < .01$ ). 다음으로,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를 긍정 결과 가치 절하가 매개하는 매개 모형에서 각 경로의 유의성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사회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 $B = .332, p < .001$ )와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영향을 통제된 직접효과( $B = .169, p < .05$ )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사회 불안이 긍정 결과 가치 절하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이 .053, 상한값이 .286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 불안이 긍정 결과 가치 절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를 긍정 결과 가치 절하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Figure 1.** Mediation model of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Note. Unstandardized coefficient values.

\*\* $p < .01$ . \*\*\* $p < .001$ .

#### 논 의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 결과 가치 절하 경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두 심리적 문제의 공존에 있어 인지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 불안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인지적 특성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높은 수준의 긍정 결과 가치 절하 경향은 더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대학생 및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과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연관성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Han, 2015; Weeks, 2010; Weeks & Howell, 2012)에 부합하는 것이며, 긍정 결과 가치 절하와 우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선행연구(Weeks, 2015)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 결과 가치 절하와 긍정적 정서 간에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긍정적 정서성이 낮을수록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인지적 왜곡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긍정적 정서는 사회 불안 및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3요인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 불안과 우울에 대한 공통적 취약성으로 높



은 부정적 정서와 낮은 긍정적 정서의 역할을 밝힌 선행연구들 (Brown, Chorpita, & Barlow, 1998; Watson & Naragon-Gainey, 2010)과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 불안이 긍정 결과 가치 절하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을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하시키는 인지적 오류가 관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의 영향은 기질적인 긍정적 정서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공존 모델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인지적 특성이 기질적인 긍정적 정서 수준 이상으로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을 설명함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이 인지적 왜곡과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적 왜곡이 정서 장애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Mathews & MacLeod, 2005 개관논문 참조), 사회 불안 및 우울의 공존에 있어 인지적 왜곡의 영향을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불안장애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관찰한 소수의 선행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불안은 불안 증상에 대한 반추적(ruminative)이고, 무기력한(hopeless) 사고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Starr & Davila, 2012). 또한, 강박장애로 진단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Abramowitz, Storch, Keeley, & Cordell, 2007)에서는 침투적 사고를 과도하게 심각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불안을 특징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불안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인지적 특성이 불안과 공존하는 우울을 설명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사회적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이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높은 부정적 정서 및 낮은 긍정적 정서와 같은 상위 차원의 기질적 요인이 사회 불안 및 우울의 공통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함이 보고됨에 따라, 이후 연구들에서는 보다 하위 차원에서 두 심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요인(general factor) 및 고유 요인(unique factor)을 구별해 밝히고자 하였다(e.g., Naragon-Gainey, Watson, & Markon, 2009).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부정적 자극과 긍정적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을 각각 구분하고, 이들과 사회

불안 및 우울 간의 차별적 관련성을 관찰한 소수의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 최근 보고된 Wang, Hsu, Chiu와 Liang(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 불안과 우울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한 반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 불안에 고유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격하하여 해석하거나 긍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인지적 과정이 사회 불안만의 고유한 특성이며, 우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상대방의 호의나 운에 의한 것으로 격하하는 인지적 특성과 긍정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사회 불안 및 우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특성이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Weeks(2015)가 긍정 결과 가치 절하 요인을 추가하여 Wang 등(2012)의 모델을 반복 검증한 결과, 즉,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 불안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난 한편,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사회 불안과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관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긍정 결과 가치 절하가 사회 불안이 이차적인 우울로 이어지는 순차적 공병 경로를 설명하는 인지적 기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종단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 경우,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차적 우울 증상 예방에 대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사회적 자극에 대한 여러 왜곡된 정보처리 과정을 보고하나, 그중에서도 긍정 결과 가치 절하 경향이 두드러지는 집단에서 우울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기질적 경향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음을 고려할 때, 긍정 결과 가치 절하가 사회 불안에 따른 우울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적 개입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 결과 가치 절하의 인지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에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이 가진 보상적 성격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피드백은 칭찬, 비판 등의 언어적 표현 또는 얼굴 표정, 눈빛, 손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극으로 개인에게 주어진다. 이때, 미소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단서는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키며,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e.g., Gorno-Tempini et al., 2001; Izuma, Saito, & Sadato, 2008). 그러나, 개인이 어떤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여부는 인지적 활

동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할 때(Gotlib & Joorman, 2010), 사회 불안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은 긍정적 사회적 단서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상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을 격하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긍정적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보상적인 정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받는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나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와 같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은 대인관계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표현되는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은 상호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Martin, Rychlowska, Wood, & Niedenthal, 2017), 개인을 둘러싼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귀인 양식과 같이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Lakey, McCabe, FIsicaro, & Drew, 1996;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주어지는 긍정적 피드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예의로 그렇게 한 것이다”와 같이 생각하는 등 그 타당성을 의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충분히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친밀한 대인관계적 경험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tarr & Davila, 2008).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 결과 가치 절하와 함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의 대인관계적 변인을 관찰함으로써, 사회 불안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는 인지적 모델과 대인관계적 모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이론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우울 수준이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임상적 절단점을 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회 불안, 긍정 결과 가치 절하 및 우울 간의 관계가 실제로는 연구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이 동시에 다른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사회 불안이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인지적 왜곡을 촉발시킴으로써 우울을 유발하는 인과적 방향성을 전제해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사회 불안과 우

울이 공존하는 경우 대부분 사회 불안이 우울에 시간적으로 선행함이 밝혀졌으며(e.g., Dalrymple & Zimmerman, 2011), 더불어 이 경우 불안이 이후 우울을 유발함으로써 두 심리적 문제가 공존하게 되는 모델이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임이 최근 연구 결과(Mathew, Pettit, Lewinsohn, Seeley, & Roberts, 2011)를 통해 보고되었다. 또한, Weeks(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불안이 긍정 결과 가치 절하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이 미치는 영향보다 약 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긍정 결과 가치 절하가 사회 불안에 특수한 요인(specific factor)임이 보고된 바 있다. 이렇듯, 사회 불안이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를 유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대한 추론은 관련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론은 추후 종단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근거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은 모두 회상적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의 부정확한 회상에 따른 왜곡이나 응답 편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사회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Clark & Wells, 1995; Rosser, Issakidis, & Peters, 2003),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된 긍정 결과 가치 절하는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인지적 왜곡이 아닌 연구 참가자의 부정적인 자기-평가(self-appraisal)을 반영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에 대한 가치 절하 경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묘사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이를 자기 자신의 성격, 기술 등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해석 또는 타인의 호의, 운 등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해석 중 더 그럴듯한 해석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해석 편향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 결과 가치 절하 경향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20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성별 및 연령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한 검증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Abramowitz, J. S., Storch, E. A., Keeley, M., & Cordell, E. (2007).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with comorbid major depression: What is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2257-226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Haim, Y., Lamy, D., Pergamin, L.,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7). Threat-related attentional bias in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s: A meta-analytic study. *Psychological Bulletin, 133*, 1-24.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approach*. New York, NY: Basic Books.
- Beesdo, K., Bittner, A., Pine, D. S., Stein, M. B., Höfler, M., Lieb, R., & Wittchen, H. U. (2007). Incidenc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nd the consistent risk for secondary depression in the first three decades of lif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4*, 903-912.
- Brown, T. A., & Barlow, D. H. (2009). A proposal for a dimensional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shared features of the DSM-IV anxiety and mood disorders: Implications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21*, 256-271.
- Brown, T. A.,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mensions of the DSM-IV anxiety and mood disorders and dimensions of negative affect, positive affect, and autonomic arousa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179-192.
- Cho, M. J., & Kim, K. H. (1998). Us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in Korea.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 304-310.
-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 59-76.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 M. R. Liebowitz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Clark, L.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metric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6-336.
- Cummings, C. M., Caporino, N. E., & Kendall, P. C. (2014).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20 years after. *Psychological Bulletin, 140*, 816-845.
- Dalrymple, K. L., & Zimmerman, M. (2007). Does comorbid social anxiety disorder impact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principal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0*, 241-247.
- Dalrymple, K. L., & Zimmerman, M. (2011). Age of onset of social anxiety disorder in depressed out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 131-137.
- Epkins, C. C., & Heckler, D. R. (2011). Integrating etiological model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th: Evidence for a cumulative interpersonal risk model.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 329-376.
- Erwin, B. A., Heimberg, R. G., Juster, H., & Mindlin, M. (2002). Comorbid anxiety and mood disorders among person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9-35.
- Farmer, A. S., Kashdan, T. B., & Weeks, J. W. (2014). Positivity deficits in social anxiety: Emotions, events, and cognitions.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 (Eds.),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3rd ed., pp. 551-578).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 Gorno-Tempini, M. L., Pradelli, S., Serafini, M., Pagnoni, G., Baraldi, P., Porro, C., . . . & Nichelli, P. (2001). Explicit and incidental facial expression processing: An fMRI study. *Neuroimage, 14*, 465-473.
- Gotlib, I. H., & Joormann, J. (2010). Cognition and depress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285-312.
- Grant, D. M., Gayle Beck, J., Farrow, S. M., & Davila, J. (2007). Do interpersonal features of social anxiet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Cognition and Emotion, 21*, 646-663.
- Gray, J. A. (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y, J. A. (1991). The neuropsychology of temperament. In J. Strelau & A. Angleitner (Eds.), *Explorations in tempera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ory and measurement* (pp. 105-128). New York, NY: Plenum Press.
- Han, S. Y.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Brozovich, F. A., & Rapee, R. M. (2010). A cognitive behavioral model of social anxiety disorder: Update and extension.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 (Eds.),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2nd ed., pp. 395-422). New York, NY: Elsevier.
- Hirshfeld-Becker, D. R., Micco, J., Henin, A., Bloomfield, A., Biederman, J., & Rosenbaum, J. (2008). Behavioral inhibition. *Depression and Anxiety, 25*, 357-367.

- Izuma, K., Saito, D. N., & Sadato, N. (2008). Processing of social and monetary rewards in the human striatum. *Neuron*, *58*, 284-294.
- Jeon, Y. J., & Park, K. H.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retation biases of positive social even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 59-73.
- Joormann, J., Yoon, K. L., & Siemer, M. (2009). Cognition, atten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A. Kring & D. Sloan (Eds.),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pp. 174-20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ashdan, T. B., Weeks, J. W., & Savostyanova, A. A. (2011). Whether, how, and when social anxiety shapes positive experiences and events: A self-regulatory framework and treatment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786-799.
-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593-602.
- Kim, H. K., Ahn, J. K., & Kwon, J. H. (2015). Do images of the self affect the retrieval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1*, 21-41.
- Kim, H. S. (2001).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J., Yoon, H. Y., & Kwon, J. H. (2013). Validation of the short form of the Korean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K-SIAS) and the Korean Social Phobia Scale (K-SP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3*, 511-535.
- Lakey, B., McCabe, K. M., Fiscaro, S. A., & Drew, J. B. (1996). Environmental and personal determinants of support perceptions: Three generalizability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70-1280.
- Ledley, D. R., Huppert, J. D., Foa, E. B., Davidson, J. R., Keefe, F. J., & Potts, N. L. (2005). Impact of depressive symptoms on the treatment of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2*, 161-167.
- Lee, H. H., Kim, E. J., & Lee, M. K. (2003).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935-946.
- Lewinsohn, P. M., Zinbarg, R., Seeley, J. R., Lewinsohn, M., & Sack, W. H. (1997). Lifetime comorbidity among anxiety disorders and between anxiety disorders and other mental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377-394.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rtin, J., Rychlowska, M., Wood, A., & Niedenthal, P. (2017). Smiles as multipurpose social signal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1*, 864-877.
- Mathew, A. R., Pettit, J. W., Lewinsohn, P. M., Seeley, J. R., & Roberts, R. E. (2011). Co-morbidity between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anxiety disorders: Shared etiology or direct caus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1*, 2023-2034.
- Mathews, A., & MacLeod, C. (2005). Cognitive vulnerability to emotional disorder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167-195.
- Mattick, P. R.,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ennin, D. S., Fresco, D. M., Heimberg, R. G., Schneier, F. R., Davies, S. O., & Liebowitz, M. R. (2002). Screening for social anxiety disorder in the clinical setting: Using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6*, 661-673.
- Muris, P., Meesters, C., de Kanter, E., & Timmerman, P. E. (2005). Behavioural inhibition and behavioural activation system scales for children: Relationships with Eysenck's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831-841.
- Myin-Germeyns, I., Peeters, F., Havermans, R., Nicolson, N. A., DeVries, M. W., Delespaul, P., & van Os, J. (2003). Emotional reactivity to daily life stress in psychosis and affective disorder: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7*, 124-131.
- Naragon-Gainey, K., Watson, D., & Markon, K. E. (2009). Differential relation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symptoms to the facets of extraversion/positive emoti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299-310.
- Ohayon, M. M., & Schatzberg, A. F. (2010). Social phobia and depression: Prevalence and comorbid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 235-243.
- Peeters, F., Berkhof, J., Delespaul, P., Rottenberg, J., & Nicolson, N. A. (2006). Diurnal mood varia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Emotion*, *6*, 383-39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es, F., Smets, J., Nelis, S., & Schoofs, H. (2012). Dampening of positive affect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ve symptoms in non-clinical samples. *Cognition and Emotion*, *26*, 75-82.
- Rosser, S., Issakidis, C., & Peters, L. (2003). Perfectionism and social phobi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s and impact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143-151.
- Ruscio, A. M., Brown, T. A., Chiu, W. T., Sareen, J., Stein, M. B., & Kessler, R. C. (2008).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the USA: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Psychological Medicine*, *38*, 15-28.
- Seligman, M. E.,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 774-788.

- Starr, L. R., & Davila, J. (2008). Differentiating interperson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in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models of comorb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 337-349.
- Starr, L. R., & Davila, J. (2012). Responding to anxiety with rumination and hopelessness: Mechanism of anxiety-depression symptom co-occurr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 321-337.
- Trezza, V., Campolongo, P., & Vanderschuren, L. J. (2011). Evaluating the rewarding nature of social interactions in laboratory animals.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 444-458.
- Vassilopoulos, S. P., & Banerjee, R. (2010).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the discounting of positive interpersonal event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8*, 597-609.
- Voncken, M. J., Bögels, S. M., & de Vries, K. (2003). Interpretation and judgmental bia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481-1488.
- Wang, W. T., Hsu, W. Y., Chiu, Y. C., & Liang, C. W. (2012). The hierarchical model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depression: The critical roles of fears of evalu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6*, 215-22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D., & Naragon-Gainey, K. (2010). On the specificity of positive emotional dysfunction in psychopathology: Evidence from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and schizophrenia/schizoty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839-848.
- Weeks, J. W. (2010). The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A novel assessment of a long-recognized cognitive tendency in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 856-865.
- Weeks, J. W. (2015).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a hierarchical model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s a key unique factor in social anxiet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4*, 103-116.
- Weeks, J. W., Heimberg, R. G., Rodebaugh, T. L., & Norton, P. J.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386-400.
- Weeks, J. W., & Howell, A. N. (2012). The 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of social anxiety: Further integrating findings on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 83-95.
- Wichers, M., Peeters, F., Geschwind, N., Jacobs, N., Simons, C. J. P., Derom, C., . . . & Van Os, J. (2010). Unveiling patterns of affective responses in daily life may improve outcome prediction in depression: A momentary assessmen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4*, 191-195.
- Wittchen, H. U., Beesdo, K., Bittner, A., & Goodwin, R. D. (2003). Depressive episodes—evidence for a causal role of primary anxiety disorders? *European Psychiatry, 18*, 384-393.
- Wood, A. M., Maltby, J., Gillett, R., Linley, P. A., & Joseph, S. (2008). The role of gratitud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on: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854-871.
- Yu, E. S., Ahn, C. I., & Park, K. H. (2007). Factor structure and diagnostic efficiency of a Korean version of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251-270.



## 국문초록

## 사회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의 영향

홍다혜·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불안과 우울은 높은 공존률을 보이는 심리적 문제이다. 두 장애가 공존하는 경우, 한 가지 장애만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예후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치료 및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두 장애가 공존하게 되는 조건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불안에서 관찰되는 특성이 우울의 발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두 심리적 문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사회 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7명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 우울,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 불안이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 불안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울 증상의 발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불안과 우울의 공존을 설명하는 인지적 요인으로써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 경향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 불안, 우울, 공존 장애,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